

우리 곁에 ‘우리’가 있다



서 선 미 역
기후에세이

잠시 빌려 쓰는 노동력이 아니라고 했다. 없으면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인력이라고도 했다. 8월 12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김영훈 장관이 한 말이다.

낮 최고기온 33.7℃의 해남, 7월 25일 그곳엔 사흘째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한국 땅을 밟은 지 고작 사흘째였던 대국 출신 한 이주노동자는 오전 6시 30분부터 고추밭과 배추밭을 오가며 일했다고 한다. 점심 무렵 짧은 휴식 후 땀별이 내리쬐는 오후 1시 30분부터는 다시 작업을 이어 갔다고도 한다. 두 시간 뒤 그는 밭 옆 도로에서 비틀거리다 쓰러졌고,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그의 체온은 43℃에 가까웠다. 병원으로 가는 길, 그는 숨졌다. 그의 서른여덟 정춘은 그렇게 여미어졌다. 7월 4일 충북 괴산, 11일 충남 홍성, 25일 전남 해남까지 한 달 사이 세 명의 이주노동자가 한낮의 논밭과 추사에서 숨을 거두었다. 꿈을 찾아 건너온 한국 땅은 그렇게 그들의 주검을 안게 된 비극의 땅이 되었다.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의 수는 100

만 명을 넘어서었다. 제조업과 농축산업, 우리가 매일 기대어 사는 산업의 아랫단을 그들이 꼼꼼하고 단단하게 채우고 있었다. ‘우리’의 노동이 닿지 않는 자리에 그들의 노동이 있어 ‘우리’의 일상이 가능했다.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은 이어졌다. 폭염이 일상이 된 만큼 ‘괴서권’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의 영역으로 넓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폭염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이 실효를 가지려면 그 권리를 행사한 노동자가 생계를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의원은 해남 사건을 두고 관리 기준만 있었어도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이라 짚었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다. 온열 질환 사망이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는 정책이 있지만 폭염경보 상황에서의 작업 중지는 권고 사항일 뿐이다.

폭염에서 작년까지는 없었던 가장 강력한 단계가 신설되었다. 명칭은 ‘폭염 중대경보’. 기준은 하루 체감온도 38℃ 이상으로 전국 곳곳에서 반복해서 발령되었다. 폭염의 정도도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그 위험은 점점 더 넓게 퍼지고 있다.

해남의 한 이주노동자, 그이는 우리의 언어와 제도, 그리고 폭염의 패턴도 알지 못한 채 가장 뜨거운 시간으로 밀려들어갔다. 농

축산업의 경우 고용구조의 특성상 이주노동자는 폭염 대응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 사업장 단위로 설계된 산업안전 점검과 근로 감독은 이렇게 흩어진 작은 일터까지 촘촘히 닿지 못할 수 있다.

8월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부와 국회, 그 누구도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거론하지 않았다. 기후적응 정책에서 이주노동자의 자리가 얼마나 희미한지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기후위기가 낳은 이상기후에서 발생하는 이주노동자 문제는 고용노동부 한 곳의 책임이 아니다. 계절 근로자와 고용허가제 인력의 체류·관리는 법무부가, 재난으로서의 폭염 대응 체계, 기후적응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몫이다.

사람들은 ‘이주노동자는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인력’이라 말하지만 그들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지 못한 태도가 만연하다. 태도는 제도가 되어 대부분의 정책 안에 ‘위험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낸다.

잠시 빌려 쓰는 노동’이 아닌 ‘반드시 곁에 있어야 할 노동’을 묵묵히 수행하던, 이주노동자의 꿈이 사라진 그 맥락을 쫓아가 본다. 그 맥락의 끝에서 우리는 그이를 여전히 ‘타자’로 부르고 있는가, ‘우리’로 부르고 있는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정책전문위원

‘선행학습’ 학원의 반가운 선행

〈善行〉



기지 수 집
이 현 진
(정책사회부)

‘선행학습’으로 이름난 수학학원 ‘생각하는 황소’가 최근 조금 다른 의미의 ‘선행’을 시작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의 수강료를 전액 받지 않기로 했다. 기존 학생뿐 아니라 앞으로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생각하는 황소는 서울 대치동에서 출발해 서울·경기뿐 아니라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주요 지역에 지점을 둔 수학학원이다. 매년 입학시험에 1만명에 달하는 초등학생이 몰릴 만큼 학부모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다.

다만 원하는 학생이 수강료만 내면 등록할 수 있는 학원과는 조금 다르다. 높은 입학 문턱과 심화·선행 중심의 수업으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호불호도 뚜렷하다. 초등학생에게 지나친 선행을 요구한다는 시선이 있는 반면,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에게 깊이 있는 문제를 접하게 한다는 평가도 있다.

숫자로 보면 문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학원은 매년 11월과 2월 전국 지점에서 동시에 정기 입학시험을 치른다. 지난해 11월 초등 입학시험에는 전국에서 9232명이 응시해 3571명(38.7%)이 합격했고, 올해 2월에는 5712명 가운데 2102명(36.8%)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이른바 ‘황소고시’를 준비하는 학원까지 따로 있을 정도다.

이번 수강료 면제는 이 문턱을 낮추겠다는 게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도 똑같이 시험을 보고 같은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그렇게 들어올 실력이 있는 아이가 부모의 형편 때문에 그다음 문을 열지 못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목이 특히 반갑다. 선발형 학원은 기

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있어야 자리가 채워진다. 실제 편입도 ‘결원 보충’ 방식으로 운영한다. 비어 있는 한 자리를 그대로 둘 수도 있지만, 그 자리를 실력은 있으나 수강료가 부담스러운 아이에게 내어줄 수도 있다. 생각하는 황소는 후자를 택했다.

사교육은 부모가 알미를 쓸 수 있느냐에 따라 아이가 접하는 교육의 폭이 달라지기 쉬운 곳이다. 특히 상위권을 대상으로 한 심화·선행 교육일수록 경제력의 영향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학원 하나가 교육격차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실력의 문턱은 그대로 두더라도 부모의 형편이라는 또 하나의 문턱은 없앨 수 있다.

‘선행학습’을 둘러싼 평가는 저마다 다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선행(善行)이라면 더 많은 학원이 앞서가도 좋겠다.

/lhj@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5일 (음 7월 13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속이 시원하게 되는 때입니다. 60년생 꼬여있던 일들이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72년생 진취적인 기운이 맴돌고 있습니다. 84년생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니 가속도가 더 해집니다



49년생 하던 일이 무난히 풀려나갑니다. 61년생 귀인이 생 각도 못했던 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73년생 사업운이 좋습니다. 85년생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상대방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50년생 대화에 설득력이 있는 하루입니다. 62년생 금전운이 좋지 않습니다. 74년생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확실치 전달하도록 하세요. 86년생 동생들과 만나는 일이 많아 지게 됩니다.



51년생 금전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63년생 횡재를 바라게 되면 길하지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75년생 투기성 있는 금전거래에 참여하는 일은 좋지 않습니다. 87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52년생 적은 액수의 금전도 무시하지 마세요. 64년생 사기에 걸려드는 수도 있으니 조심하도록 하세요. 76년생 다른 때보다 무척 바빠집니다. 88년생 좌우로는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합니다.



53년생 입지는 더욱 단단하게 될 것입니다. 65년생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77년생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89년생 전업의 제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4년생 판단을 미루시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세요. 66년생 눈앞에 드러나는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됩니다. 78년생 기다려 보세요. 90년생 상황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55년생 끝이 없고 감이 분명치 못합니다. 67년생 마음에 든구름이 생겼다가 사라짐과 같습니다. 79년생 한번 서로 다룰 수 있습니다. 91년생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56년생 재수는 그래도 평탄한 편 입니다. 68년생 마음이 답답하고 심란하게 됩니다. 80년생 깊이 개입하려 들면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92년생 좋은 일은 주로 집 밖에서 생깁니다.



57년생 밖으로 나아가세요. 69년생 동복 양방에 반드시 기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81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길합니다. 93년생 오늘 하루 주변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58년생 조상을 잘 모셔안만 나쁜 일을 면합니다. 70년생 재물이 집에 들어옵니다. 82년생 두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으니 밀고 나아가세요. 94년생 한 때는 괴로움을 겪을 것입니다.



59년생 재물을 얻어도 꾸준히 모으기가 쉽지않습니다. 71년생 부모님에게 안부전화를 하세요. 83년생 금전거래는 당분간 다음으로 미루세요. 95년생 즐거움은 저녁식사를 하면 좋습니다.



김상회의四季

백중기도 정성

백중도 막재를 향해 가고 있다. 지옥문이 열리고 모든 인연 영가들이 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란분절(盂蘭盆節)은 석가탄신일과 함께 불가의 큰 행사일이다. 사바세계 오락악제를 살아가는 중생들은 각자의 선행 조상과 친족 연족 영가들을 위해 정성껏 과일과 꽃, 음식을 마련하여 공양을 올리며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님의 대원력으로 모두 지옥 곁을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후손으로서의 정성을 올린다. 백중재가 또 하나 그의 미가 큰 것은 인연이 있거나 없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유주무주 고훈들까지 천도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백중재만큼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참하면 할수록 좋은 불가의 재(齋)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는 진정한 효도는 돌아가시고 나서보다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뵙고 살펴드리는 것이 자손의 우선적이고도 당연한 효도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불선업을 많이 짓는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식들을 건사하기 위해 때로는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지었을 것이다.

또한, 몸을 여윈 후에 선처에 나지 못했다면 지옥을 비롯한 사악 차를 떠도는 것이 욕계 중생들이므로 어서 빨리 불법 인연으로 다시 선처 이상에 태어나 궁극의 해탈과 열반을 얻어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행복이라는 불가의 믿음이니 후손된 도리를 멀리할 수 없다. 이러하기에 해마라는 백중재를 최대한 정성스럽게, 의미 있게 지내드리려 마음을 다하고 있다. 선망 조상들, 유주무주 고훈들의 업식과 업장을 맑게 해서 해탈지견을 얻게 하는 것은 재를 주관하는 이의 도력도 도력이지만 동참 재가자들의 합일된 정성을 무시할 수 없다. 필자는 출가 스님은 아니나 법상종 법사로 이를 엄연하게 인지하고 있기에 남다른 정성을 더 하고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80호	
일간 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8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훈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스도쿠 3650

결란스도쿠11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1	7	9	8	6	2	9	
2	9	9	2	7	6	1	8	6
6	8	8	1	9	2	7	2	9
9	8	6	7	2	9	1	6	9
1	6	2	9	9	8	2	6	7
9	7	2	6	6	1	2	9	8
8	9	1	2	6	7	8	9	2
7	2	9	8	2	9	8	6	1
6	2	6	8	1	9	9	7	2

9	1	2	9	6	8	2	6	7
6	9	8	7	2	6	2	9	1
2	7	6	1	2	9	9	8	6
2	2	9	8	7	6	6	1	9
6	8	9	9	1	2	6	7	2
1	6	7	8	9	2	9	2	8
9	9	2	6	8	1	7	2	6
7	2	1	2	6	9	8	6	9
8	6	6	2	9	7	1	9	2